

# 『서울에서 미리 내다보고 함께 얘기한 예술과 도시의 미래』

(서울국제예술포럼 SAFT 2025 정책리뷰)

# 『서울에서 미리 내다보고 함께 얘기한 예술과 도시의 미래』

## (서울국제예술포럼 SAFT 2025 정책리뷰)

김해보 서울문화재단 정책협력실 전문위원

11월 4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국제예술포럼 SAFT(Seoul·Arts·Future Talks) 2025가 개최되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서울에서 예술·문화·기술·도시·정책의 동시대 이슈를 토론하고 <서울다움>의 매력으로 새로운 글로벌 문화 트렌드와 담론을 만들어 가는 자리로 기획한 글로벌 포럼이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지속될 이 행사의 정체성과 포부를 담아서 정한 2025년 포럼의 주제가 바로 "Seoul Talks on Arts & Future"(서울에서 세계가 함께 이야기하는 예술과 미래)였습니다.

"Arts Meet @Seoul(세계 예술이 서울에서 만나다)"는 컨셉으로 기획된 <서울리셉션>에 이어 <Artistic-I × Artificial-I : 예술-감각과 인공-지능의 공진화>(1부 미래토크), <Seoul × Arts ~ 서울-다움과 예술-도시>(2부 예술토크), <Locality×Attraction : 글로벌 도시의 새로운 자원과 전략으로서 로컬리티와 매력>(3부 정책토크)을 주제로 토크들이 이어졌습니다. 대화에는 시각예술가, 안무가, 축제 및 공연 프로듀서, 미술 큐레이터, 문화정책가, 문화물리학자, AI연구자 및 뇌과학자, 도시공학자, 사회학자, 경제학자가 참여하였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관점과 사례를 주고 받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이 글로벌 예술도시를 지향한다면, 기술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문명 변화의 속도를 주도하고 있는 지금, 예술이 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 듯 합니다.

1부 토크 진행을 맡았던 박주용 교수(KAIST)의 저서 제목처럼, 미래는 단순히 데이터의 조합으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문화도시의 미래는 다양한 문화적 변화의 가능성, 그 변화를 추동하는 취향과 정체성을 담은 “사람들의 대화”로 엮어집니다. <서울국제예술포럼 SAFT(Seoul·Arts·Future Talks)>는 올해 내건 가치 “Seoul Talks on Arts & Future”(서울에서 세계가 함께 이야기하는 예술과 미래)처럼, 매년 이맘 때 쯤 세계인들이 서울에 모여서 미래와 예술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려고 합니다. <서울다움을 화두로 한 글로벌 문화담론 플랫폼>으로서 새로운 문화 흐름을 자극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도 늦가을에는 이듬해 봄바람을 온세계 사람들이 서울에 모여 함께 얘기하는 판이 열릴 것입니다. SAFT.

### < 목 차 >

1. 서울에서 세계가 함께 한 ... 예술과 도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
2. Ai(인공-지능)의 속도 내기와 AI(예술-감각)의 방향 잡기
3. 예술도시를 서울다음으로 각인시키는 데 필요한 긴 호흡의 관계
4. 로컬리티의 매력을 글로벌 트렌드로 만드는 도시의 미래전략
5. 사람들의 대화로 미래를 엮어가는 SAFT



## 1. 서울에서 세계가 함께 한 ... 예술과 도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

지난 11월 4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국제예술포럼 SAFT(Seoul·Arts·Future Talks) 2025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SAFT 2025([www.saft.kr](http://www.saft.kr))는 서울문화재단이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서울에서> 예술·문화·기술·도시·정책의 동시대 이슈를 토론하고 <서울다움>의 매력으로 새로운 글로벌 문화 트렌드와 담론을 만들어 가는 자리로 기획한 글로벌 포럼입니다. 아방가르드한 예술부터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까지, 다양한 영역을 넘나 드는 폭넓고 심도 깊은 대화였음에도 불구하고 600여 명의 청중들이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SAFT 2025는 서울문화재단이 글로벌 재단으로 도약을 목표로, 그 동안 개최해 오던 여러 정책 담론장을 국제 규모로 확대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행사이입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지속될 이 행사의 정체성과 포부를 담아서 정한 2025년 포럼의 주제가 바로 "Seoul Talks on Arts & Future"(서울에서 세계가 함께 이야기하는 예술과 미래)였습니다. 이에 걸맞게 포럼은 "Arts Meet @Seoul(세계 예술이 서울에서 만나다)"는 컨셉으로 기획된 <서울리셉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네덜란드대사관, 독일문화원 등 서울 주재 각국 외교 및 문화교류 기관 대표자들을 포함한 총 100여 명의 국내외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모여, 서울과 예술에 대한 대화로 교류의 장을 열었습니다.



"Arts Meet @Seoul(세계 예술이 서울에서 만나다)"는 컨셉으로 기획된 <서울리셉션>에 참석한 Peter van der Viet (페터 반 더 플리트) 네덜란드 대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 및 문화교류 기관 대표자들

포럼 개막에 앞서, <무토(MUTO)>가 미디어 아트, 우리 전통 소리, 악기 연주를 결합한 공연에서 뿐어낸 에너지는 최근 전 세계인들이 한류에 열광하는 이유를 짐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전체 포럼 사회를 맡은 한젬마 서울명예시장은 이번 포럼이 “담론이 생산되고 정책으로 이어지는 자리”라고 소개하였습니다.

박상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최종 결론을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고 질문을 함께하는 자리...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긴 호흡으로 이어지는 협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얘기했습니다.



한국 전통음악과 한글 등 전통적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미디어아트를 융합한 <무토(MUTO)>의 개막 공연



“담론이 생산되고 정책으로 이어지는 자리”로 소개하며 전체 사회를 맡아서 포럼을 진행한 한젬마 서울명예시장



“긴 호흡으로 이어지는 협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는 서울문화재단 박상원 이사장의 환영사

오세훈 서울시장은 영상 축사에서 “예술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기술이 도시의 속도를 만들 때 예술이 방향을 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가 “6천 년의 문화 뿌리 위에 2천 년 사람들의 이야기가 쌓인 도시, 서울”에서 펼치는 세계인들의 미래-예술-정책 토크의 막을 올렸습니다.

● 행 사 명 : 서울국제예술포럼 SAFT(Seoul·Arts·Future Talks) 2025

● 일 시 : 2025.11.4.(화) 13:00~18:00

(당일 11:30시부터 서울리셉션, 11.3(월) 서울매력현장 투어 등 개최)

● 장 소 :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 2관 (행사 홈페이지 : [www.saft.kr](http://www.saft.kr))

● 주 최 : 서울문화재단

● 주 제 : Seoul Talks on Arts & Future (서울에서 세계가 함께 이야기하는 예술과 미래)

● 진행개요

구분	시간	장소	프로그램	진행 내용 개요
11.3.(월) 매력도시 문화전략 전문가 워크숍 (사전행사)	10:00 (180')	세종문화회관,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매력 현장투어와 點心(점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의 심장에서 찾아보는 한류 에너지의 근원 : “궁(宮)의 질서와 판(場)의 역동”</li> <li>- “한국의 맛으로 마음에 점 찍기(點心)”</li> </ul>
	14:30 (120')	서울문화 예술교육 센터-용산	정책 라운드테이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 대담, 포럼 세션별 토의 (장원호 죄장   포럼 연사 전원)</li> </ul>
	17:00 (90')	노들섬	한강消風 (소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강에서 서울 바람 쐬며 치맥과 환담” (서울매력 중 하나인 한강 및 노들섬 투어)</li> </ul>
11.4.(화) 서울국제 예술포럼 (본행사)	11:30 (90')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아트홀 2관	서울리셉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rts Meet @Seoul “세계예술이 서울에서 만나다”</li> </ul>
	13:00 (30')		개막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막공연 : 무토(MUTO)</li> <li>- 전체사회 : 한젬마 (서울시 명예시장)</li> <li>- 개회사 : 박상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환영사, 오세훈 서울시장 영상축사 등</li> </ul>
	13:30 (70')		1부_미래토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rtistic-I×Artificial-I “예술-감각과 인공-지능의 공진화” (박주용 죄장   김대식(김혜연), 오주영 게어프리트 슈토커)</li> </ul>
	15:00 (70')		2부_예술토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eoul×Arts “서울-다음과 예술-도시” (장웅조 죄장   질 도레, 로나 두기드, 우현수)</li> </ul>
	16:30 (70')		3부_정책토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ocality×Attraction “글로벌 도시의 새로운 자원과 전략으로서 로컬리티와 매력” (변미리 죄장   김해보, 모종린 루즈 라이센링, 우정현)</li> </ul>
	17:40 (10')		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럼 종합정리 : 송형중 대표이사</li> <li>- 기념사진 촬영</li> </ul>
	18:00 (180')	창신동 낙산서울성곽	서울야간 풍경산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策)은 흩어 두고, 서울야간 풍경散策” (창신동 채석장 전망대, 낙산서울성곽길 투어)</li> </ul>



## 2. Ai(인공-지능)의 속도 내기와 AI(예술-감각)의 방향 잡기

무대를 밝히고, <미래-예술-정책> 토크로 이름 붙인 세 개의 세션에서 총 14명의 연사들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세션별 주제는 각각 <Artistic-I×Artificial-I>(1부), <Seoul×Arts>(2부),

<Locality×Attraction>(3부)였습니다. 세션 이름들처럼 토론 내용은, 기술이 주도하고 있는 인간 문명의 미래, 그에 감응하며 변화하는 예술 현장, 이런 흐름들을 종합하여 글로벌 매력을 지속할 전략을 새로 써야 하는 도시의 미래를 두루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핫 한 동시대 글로벌 문화 트렌드가 된 <한류>, 예술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영역을 대체해 나가고 있는 <인공지능(Ai)>, 가상공간에 새로운 문명세계를 구축해 가는 <디지털전환(DX)>, 초연결 글로벌 플랫폼 위 매력의 원천으로서 <로컬리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 그리고 글로벌 문화 리더가 되려는 서울시의 정책목표가 바로, 이야기들이 쌓이고 엮이는 맥락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오스트리아, 독일, 미국, 캐나다를 아울러 서울의 대화판으로 초청된 연사들은, 시각예술가, 안무가, 축제 및 공연 프로듀서, 미술 큐레이터, 문화정책가, 문화물리학자, AI연구자 및 뇌과학자, 도시공학자, 사회학자, 경제학자였습니다. 그만큼 나를 관점과 사례가 다양하고 풍성한 이야기 자리였습니다.

SAFT 2025 - "Seoul Talks on Arts & Future" (서울에서 세계가 함께 이야기하는 예술과 미래)		
세션	세션 주제 및 토의 내용	연사 및 발표 제목
1부 — 미래 토크 (13:30 -14:40)	<b>Artistic-I × Artificial-I (예술-감각과 인공-지능의 공진화)</b>  기계 알고리즘의 계산으로 우리의 문화적 삶이 생성되는 시대, 감각하는 인간의 몸에 깃든 예술과 매력적인 도시에 깃들 예술가가 그려내야 할 인간의 미래를 이야기한다.	모더레이터 : 박주용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① 김대식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뇌과학자 "AGI 시대 현실과 미래" (with 김혜연 AI 기반 안무가 "인공육체 감각지능") ② 오주영 시각예술가, 기술연구 기반 창작자 "Aura.exe: O/ 이미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③ 게어프리트 슈토커(Gerfried Stocker) Ars electronica 공동대표 겸 예술감독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 – 예술이 기술을 만날 때"
2부 — 예술 토크 (15:00 -16:10)	<b>Seoul × Arts (서울-다음과 예술-도시)</b>  서울은 예술창작의 영감이자 발신지로, 한류의 중심에서 그 매력의 근원을 드러낸다.  역사성·공감·다양성·디아스포라가 엮인 '서울다음' 속에서 글로벌 문화예술의 흐름과 새로운 담론을 이야기한다	모더레이터 : 장웅조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① 질 도레(Gilles Doré) 캐나다 공연예술마켓(CINARS) 총감독 "서울, 전통과 메타모더니즘 사이에서 세계와 다리를 잇다" ② 로나 두기드(Lorna Duguid) Creative Scotland 국제교류총괄 "페스티벌 도시 에든버러: 국제화를 견인하는 동력" ③ 우현수 필라델피아 미술관 아시아미술 디렉터 겸 한국미술 큐레이터 "진화하는 비전: 해외 한국미술의 궤적과 미래"
3부 — 정책 토크 (16:30 -17:40)	<b>Locality × Attraction (글로벌 도시의 로컬리티와 매력)</b>  세계 도시들은 시민들의 응성거림(Buzz)으로 광장을 채우기 위해 어떤 매력과 전략을 준비해야 할까? 도시의 환경, 역사, 문화, 그리고 그 위에서의 인간 활동이 얹힌 '로컬리티'에 대해 이야기한다.	모더레이터 : 변미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① 김해보 서울문화재단 정책협력실 전문위원 "매력중심 도시발전 전략 연구" 소개 ② 모종린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골목길 경제학자 "서울의 건축환경과 로컬리티" ③ 루츠 라이센링(Lutz Leichsenring) VibeLab 공동CEO, 야간문화정책 글로벌 컨설턴트 "도시의 새로운 매력으로서 야간문화 24시간 도시 전략의 글로벌 동향" ④ 우정현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데이터기반 도시공학자 "인간 중심으로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도시"

## 1부 미래 토크(Future Talk)의 주제는 “Artistic-I × Artificial-I : 예술-감각과 인공-지능의 공진화”였습니다.

이 세션에 던져진 질문은 “기술의 지능과 예술의 감각이 서로 이끄는 공진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예술-기술-문화-상상력은 도시의 문화적 삶을 어디로 이끌 것이며, 예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였습니다.



“Artistic-I × Artificial-I : 예술-감각과 인공-지능의 공진화”를 주제로 진행된 1부 미래 토크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뇌과학자 김대식 교수(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는 거부할 수 없는 Ai 문명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로 미래 토크를 시작했습니다. “Ai는 기술이 아니고 새로운 문명이다. 기술은 싫으면 안 쓰면 되지만, Ai 문명에서는 예술가가 선택적으로 빠져나가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지금이 (딥페이크로 교묘하게, 있었을 법하지만 실제로는 없었던 사실을 삽입해서) “역사가 업데이트 되는 시대”라고 촤평했습니다. 영국의 공영방송에서 Ai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진행하던 앵커가 마지막에는 자신도 가짜라며 사라지고, 젊은이들은 프롬프터로 생성된 가상의 현실감을 갈수록 더 탐닉합니다. 급기야 진짜를 가짜로 부정하는 음모론에 중독되어 가는 현실을 충격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세션 좌장을 맡은 박주용 교수(KAIST 문화기술대학원)는 “Ai 시대에 예술의 정의가 본질적으로 바뀔것인가? 예술하는 행위의 의미도 바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대식 교수의 전망은 “이데아에 대한 모방(미매시스)을 모방했다는 예술”의 미래가 긍정적이기 보다 비관적이라는 생각에 더 기운 듯 합니다. 어쩌면 이런 전망은 우리가 지금 현재의 예술 개념 위에서 생각할 때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일지도 모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온 게어프리트 슈토커(Gerfried Stocker) 아르스 일렉트로니카(Ars electronica) 대표는 “예술의 의미는 당연히 바뀐다. 창의성의 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Ai로 예술을 만드는 것은 쉽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예술이라고 볼 것인가?”며, 결국 예술 가치의 판단 주체가 인간임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예술은 지속되겠지만 예술가는 지속될 수 있을까?”며 우려의 시각을 동시에 내보였습니다. 김대식 교수의 공동발표자로 초청된 김혜연 안무가는, “기존의 장르와 예술가의 역할 경계로 나누어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본질적으로 예술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무용은 무용수가 해야 할 지금의 역할을 재정의 해야 할 시간이다. 잊고 있었던 우리의(예술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연사로 초청된 오주영 작가는 “Aura.exe: 이 이미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는 제목의 발표를 준비해왔습니다. 인간 대신 AI가 작품을 감상하고 비평하게 했던 자신의 기술연구 기반 작업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데이터 학습량이 많다고 알고리듬의 산출 결과가 더 좋아지지는 않는다. 기계가 너무 많은 걸 알면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알고리듬 개선을 위해 인간의 다양한 사고방식을 모방하는 데 열을 올리는 가운데, 최근 영국의 앨런 튜링 연구소가 "Ai 다르게 하기"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sup>1)</sup>. 기존 방식의 <확률적 정답 찾기>에서 벗어나 <문화적 균형 찾기>를 추구하자는 제안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인간이 이성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사회-문화적 존재로서, 좀 더 어른스러운 행동을 위한 결심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서 오주영 작가의 말은, 더 많은 데이터 보다 <예술적 감각>으로 핵심을 통찰하는 인간의 직관적 사고를 모방하는 알고리듬에 대해서도 힌트를 줍니다. 그런데 최소 20년 안에는 범용인공지능(AGI)가 구현될 것이라는 가정 위에서 김대식 교수가 던진 예술의 본질에 대한 질문은, 무척 무겁습니다. "Artistic-I × Artificial-I (예술-감각과 인공-지능의 공진화)"라는 말이 현실에서는 인간의 일방적 선언에 그칠 것 같습니다.

"너희 인간들의 감정은 뇌 안의 신경세포들 사이의 전기신호일 뿐이지 않나?... 인간만이 가진 창의성? 호모사피엔스들끼리만 창의적이라고 깔깔대는 것일 뿐... 그것은 Ai의 작동과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 오히려 인간에 비해 Ai는 계속 진화하며 인간의 상상 범위 밖의 우주 전체를 상상한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전체 그림 중 픽셀 하나라고 하면, Ai는 화면 전체를 본다. 너희는 진정 예술을 한 적이 없지 않은가?"라고 AGI가 인간에게 질문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지 준비해야 한다." (김대식 교수의 미래 토크 발언 재구성)



1부 미래 토크에서 발표하는 김대식 교수와 오주영 작가

우리는 정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김혜연 안무가는 "나는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몸과 죽음과 노화에 대해 탐구한다....(기계가 인간을 닮아가는 시대에) 인간이 어떤 감각을 다시 배워야 할지 고민한다"고 말했습니다. 슈토커(Gerfried Stocker) 대표는 "Ai로 무엇을 대체할 수 있을까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Ai와 함께 해서 할 수 있는 일, Ai 덕분에 처음으로 가능해지는 일에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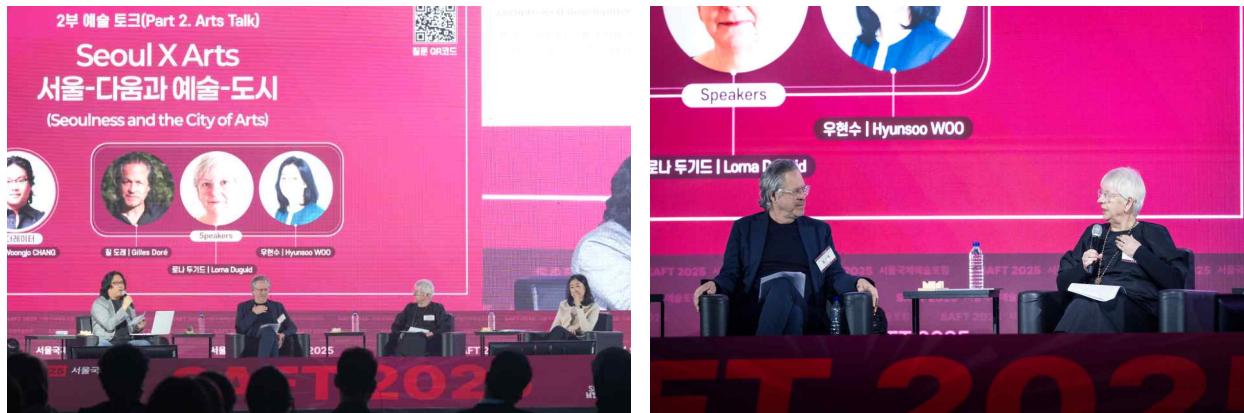
오주영 작가는 을숙도에서 생태적 위기에 처한 새들을 위해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Ai 기술을 새들을 위해 쓴다면? 새들이 Ai 기술을 쓴다면?"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날기 보다는 날개 짓으로 소통하는 어미 새 <드론>을 만들어 새끼 새들을 돌봤던 작업을 소개했습니다. 바야흐로 만물과 연결되는 <포스트-휴먼>이든, 더 센 인간으로 초월하려는 <트랜스-휴먼>이든,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는 인식의 확장만이 조만간 인간보다 더 지적인 기계가 지배할 지구 위에서 좀 더 오래된 지성체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임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예술가는 좀 <비-인간적>인 <예술-감각>으로 기술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박주용 교수는 기술이 자기 속도를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내달리는 지금이 바로 "예술과 인간의 본성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할 시간"임을 강조하며, 미래 토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1) Hemment, D., Kommers, C., et al. (2025). Doing AI Differently: Executive Summary. London: The Alan Turing Institute. 참조

### 3. 예술도시를 서울다움으로 각인시키는 데 필요한 긴 호흡의 관계

#### 2부 예술토크(Arts Talk)는 “Seoul × Arts ~ 서울-다움과 예술-도시”을 주제로, 예술창작의

영감/플랫폼/발신자로서, 예술도시 서울의 매력과 미래 전략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장웅조 교수(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의 진행으로,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한류 매력>의 정체는 무엇이며, 지속가능한가?는 질문에 답하는 대화로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문화판을 움직이는 외국인 프로듀서들과 외국에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한국인 큐레이터가 바라본 한류의 매력과 서울다움에 대한 느낌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Seoul × Arts ~ 서울-다움과 예술-도시”을 주제로 진행된 2부 예술 토크

우현수 큐레이터(필라델피아 미술관 아시아미술 디렉터)는 강남스타일로 시작한 케이팝의 인기 이후, 최근 음식, K-Art로까지 확장되는, 한국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호감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본인이 외국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여전히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미디어에서 송출되는 콘텐츠로 인해 전쟁과 연결되어 있었답니다. 하지만, 최근 “케데현”과 같은 대중문화의 인기 속에 그 이미지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한층 심화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외국인의 시각으로, 질 도레(Gilles Doré) 캐나다공연예술마켓(CINARS) 총감독은 “서울은 전통과 메타모더니즘이 함께 존재하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중심주의 가치관, 젠트리피케이션, 세대 갈등 등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서울이라는 대도시를 바라볼 때 전통과 초현대성 사이의 긴장감이 존재한다”는 그의 진단은 전날 진행된 <서울매력 현장투어>에서 확신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토론의 맥락을 공유하기 위해 포럼 하루 전에 <서울의 심장에서 찾아보는 한류 에너지의 근원 : “궁(宮)의 질서와 판(場)의 역동”<sup>2)</sup>이라는 주제로 현장 투어가 있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 광화문광장 → 월대/광화문 → 경복궁 → 아트코리아랩 → 열린송현녹지광장 → 국립현대미술관/한식당 두레로

#### 2) 토론 주제와 연계점은 아래 서울매력 현장투어 안내문 참조

“Tracing the Pulse of K-Culture: From Seoul’s Gung(宮) to Pan(場) – Where the Order of Nature Meets the Dynamism of Humanity” – 지금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한류 매력의 근원은 오랜 역사 위에 켜켜이 쌓여 온 한국인의 문화적 에너지이다. 이번 투어에서는 그 에너지의 원류를 <서로 충돌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이질적 요소들 간의 역동적인 균형> 관점에서 찾아본다. 자연과 인간, 道(도)의 질서와 生(생)의 무질서, 정치와 경제, 통치의 제도와 삶의 행위자, 문화와 예술, 국가와 시민, 그것을 대표하는 궁(宮)과 판(場)이 그 역동의 대구를 이룬다. 동아시아의 철학을 빌리면 이를 단순히 <文(문)> 즉 <物(물)들의 상호작용의 무늬>로 표현할 수 있다. 개별자와 보편자 사이의 이런 역동적 균형이 어쩌면 국가가 주도하는 <문치교화(文治教化)> 보다 알고리듬 시대의 <문화~Culture> 본성에 더 가깝다. 세종문화회관~광화문광장~경복궁~ 열린송현녹지광장~국립현대미술관으로 이어지는 서울의 심장부는 그런 역동성이 가장 잘 뒤섞여 나타나는 공간이다. 세계시민들이 함께 노는 판 위에서 고유한 한국적 로컬리티로써 그들을 이끄는 흐름(魅力)을 만들어야 하는, <디지털판(platform)>의 시대에, 서울의 심장부를 잠시 걸으며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

이어지는 산책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글로벌 대도시 서울의 한복판에서 전통과 현대, 질서와 무질서, 자연과 문명, 싹움과 썩음 등, 서로 대치하는 요소들 사이의 역동적 긴장 관계가 만들어 내는 다양한 국면을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다움>, <서울다움> 매력의 원천일 수 있다고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궁(宮)의 질서와 판(場)의 역동”을 주제로 진행된 <서울매력 현장투어> 내내 이어진 서울다움에 대한 토론

- 아트코리아랩에서 경복궁을 내려다보며 디지털 판 위에서의 K-콘텐츠 매력에 대한 토의
- 열린송현녹지광장의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현장에서 진행된 “인간적인 도시”에 대한 토론

예술 토크를 위해 준비한 두 번째 질문은 “예술창작의 영감/플랫폼/발신처로서, 즉 <예술도시로서 서울다움>의 매력을 키워가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였습니다. 장웅조 교수가 “단 하나의 실천이 중요하다면 무엇일까?”는 질문을 던졌고, 축제와 문화를 통한 국제 교류, 글로벌 공연예술 유통, 한국미술의 해외 진출 영역에서 각각 확고한 사례를 보여준 연사들의 조언이 이어졌습니다. 질 도레(Gilles Doré) 총감독은 “서울의 커뮤니티가 세계에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예술가들이 그 매개자로서 전 세계에 서울의 문화를 전달 할 수 있다. 그것을 위한 대화, 즉 연결의 지점 만들기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로나 두기드(Lorna Duguid) Creative Scotland 국제교류총괄 디렉터는 “파트너들 간의 신뢰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이 바라보는 한국의 이미지와 한국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이미지 사이의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우현수 큐레이터는 경험에서 우러나는 조언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문화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보편성으로 접근해야 한다.... 전혀 몰라도 즐길 수 있어라는 느낌을 줘야 한다.... 일단 와서 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느낄 수 있다는 호기심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예술을 외국에 알리고 싶다면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큐레이터만 찾기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분야의 현지 외국인 큐레이터들을 한국으로 불러오고, 그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해외 미술관에서 한국 미술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소장품을 확대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웅조 교수는 이들의 대화를 “협업 전에 갖게 되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협업의 시작점이 된다. 공통점 찾기는 두려움을 덜어 주는 중요한 접근이다”고 요약하며, 그 협업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물었습니다. 질 도레(Gilles Doré) 총감독은 “장기적 관계를 지향하는 긴 비전이 필요하다. 가치를 공유하며 협력의 의지를 보여야 협력이 가능하다. 장기적 관점 없이는 협력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나 두기드(Lorna Duguid) 디렉터는 이런 협업의 성공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성과 지표 선택과 측정이 필요하다. 양적 평가 외에 질적 평가가 함께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장웅조 교수는 “최근 회자된 김천의 김밥 축제처럼... 원래 매력 있던 도시가 아니고 매력 자원이 없는 도시는 어떻게 매력을 만들어야 하는가?”는 청중 질문을 소개했고, 패널들은 “그 지역만의 유니크함”을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질문과 성과 측정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3부 정책토크로 이어졌습니다.

## 4. 로컬리티의 매력을 글로벌 트렌드로 만드는 도시의 미래전략

3부 정책 토크(Policy Talk)는 앞서 살펴본 기술과 예술의 변화에 부응하는 도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변미리 박사(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진행으로, “Locality x Attraction : 글로벌 도시의 새로운 자원과 전략으로서 로컬리티와 매력”을 주제로, 서울의 로컬 매력을 글로벌 문화트렌드로 만드는 미래 전략을 토론했습니다. 이를 위해 준비한 질문은 “<경쟁력>의 시대를 지나 <매력>이 새로운 소프트파워로 주목받고, 고유한 <로컬리티>가 그 핵심 자원이 되는 시대에, 글로벌 도시들의 문화전략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디지털트윈으로 관리되고 알고리듬이 문화 흐름을 만드는 시대에, 도시의 광장을 시민들의 <문화적 웅성거림(Cultural Buzz)>으로 채우려면 어떤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가?”였습니다.

이 세션은 서울문화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매력 중심의 도시발전 전략체계 : City Attractiveness Compass> 연구와 연동하여 기획되었습니다. 패널들의 토론에 앞서 서울문화재단 정책협력실 김해보 전문위원이 연구 배경과 내용, 그리고 이번 포럼과의 연계성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제 남보다 한 발 앞서 달리는 <경쟁력>보다 함께 가도록 끌어들이는 <매력>이 더 강력한 소프트파워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 원천은 도시의 환경·역사·문화와 인간 활동이 얹혀 형성되는 로컬리티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미>, <심미>,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도시로 이끄는 매력 자원의 분포와 트렌드, 미래 전략을 제시하는 <매력중심 도시발전 전략체계(City Attractiveness Compass)> 연구 결과가 2026년 1월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Locality x Attraction : 글로벌 도시의 새로운 자원과 전략으로서 로컬리티와 매력”을 주제로 진행된 3부 정책 토크

이번 연구에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골목길 경제학자 모종린 교수(연세대학교)가 첫 번째 연사로 “서울의 건축환경과 로컬리티”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서울은 이미 매력적인 도시이다. 로컬이 강한 도시가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로컬리티 =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독특함. 글로벌 표준화에 대한 대안적 가치”라고 정의하고, <역사문화형, 예술창작형, 라이프스타일형, 커뮤니티형> 등으로 로컬리티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측정하는 여러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로컬리티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미래로의 전진이다”는 슬라이드로 발표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로 초청된 루츠 라이센링(Lutz Leichsenring)은 베를린, 암스테르담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야간문화정책 글로벌 컨설팅 그룹 VibeLab의 공동CEO입니다. 그는 “도시의 새로운 매력으로서 야간문화: 24시간 도시 전략의 글로벌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이 주목해야 할 새로운 매력자원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습니다. 그는 노벨상 수상자 엘리 비젤(Elie Wiesel)의 작품 《밤 (Night)》을 인용하며 “밤은 낮보다 더 순수하고 강렬하고 진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암스테르담, 상파울루, 토론토 등

글로벌 도시들이 새로운 문화정책의 중점으로 주목하고 있는 **<야간문화 : Night Culture>는 단순히 유흥의 영역이 아니고 경제, 공동체, 문화와 두루 연관된, 종합적 전략이 필요한 정책 영역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기후 온난화로 시민들의 야간활동이 많아지고, 민주주의와 대화를 위한 공간 확보, 외로움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더 많은 야간문화 활동을 선호하는 창조 인재 유치를 위해서도, 야간문화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브랩이 개발한 <6X6 프레임 워크>를 소개하며 보다 종합적인 생태계 관점의 이해와 정책이 필요함을 소개했습니다.

세 번째 발제자 우정현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는 빅데이터 및 AI 기술을 활용한 도시계획 및 도시디자인 연구자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스마트시티 전략 안에 시민들의 문화생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문화정책의 디지털전환(DX)을 연결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인간 중심으로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도시”라는 제목의 발표로 답했습니다. 그는 산업의 발전단계와 도시화 단계의 관계성을 설명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한창인 지금까지 기술은 급속히 변화했지만, 도시의 물리적 변화는 미미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기존의 물리적 공간의 활용은 제한적이었던 반면,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 시티 기술이 더 좋은 삶을 위한 솔루션과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결국 <다양성>이 도시매력 자원의 유지와 성공적인 도시설계에 모두 핵심적인 요소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먼저 변미리 박사가 야간 문화가 활성화된 24시간 도시가 좀 더 <포용적인 도시(inclusive city)>가 되기 위해 집중할 영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루츠 라이센링(Lutz Leichsenring) 대표는 **“풀뿌리 경제 시스템, 즉 소규모 클럽, 문화공간, 식당 등 다양한 골목상권 생태계가 젠트리피케이션, 소음 갈등 등으로 인해 문 닫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우정현 교수는 다양한 시민들이 실제로 살아가야 할 도시의 디자인과 계획이 너무 전문가들 주도로 진행되는 것을 시민 참여형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빙랩(living-lab)을 통해서 시민들이 co-designer로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미리 박사가 **“글로벌 표준화 시대에 로컬리티가 서울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 것이다”**고 정책토크를 요약하며, 서울문화재단 또는 서울시가 자치구 단위의 로컬 주체들과 함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모종린 교수는 **“자치구 또는 자치구 문화재단과 협력하여 구 당 하나씩 창조지구를 만드는 것 제안한다. 그것이 글로벌 도시 서울의 품격에 맞는 것이다”**고 답했습니다. 오랫동안 서울연구원에서 도시경쟁력 연구를 총괄해 온 변미리 박사는, 이제 도시 경쟁력의 핵심이 경제에서 문화로 옮겨가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세션을 마무리했습니다.



로컬 매력을 글로벌 트랜드로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전략과 서울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해 토의한 3부 정책 토크

## 5. 사람들의 대화로 미래를 염두하는 SAFT

모든 세션이 끝나고 폐회사를 위해 무대에 오른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예술이 무엇인지 더 깊이 질문하고, 서울이 문화도시로서 글로벌 도시들을 리드하도록, 서울문화재단이 문화예술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원자 역할을 하겠다. 오늘의 만남에서 나눈 대화가 현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담론의 실천을 약속했습니다.



포럼 전체를 마무리하며 담론의 실천을 약속하는 서울문화재단 송형종 대표이사

1부 미래토크의 진행을 맡은 박주용 교수의 저서 제목처럼, 미래는 단순히 데이터의 조합으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문화도시의 미래는 다양한 문화적 변화의 가능성, 그 변화를 추동하는 취향과 정체성을 담은 “사람들의 대화”로 염두합니다. <서울국제예술포럼 SAFT(Seoul-Arts-Future Talks)>는 올해 내건 가치 “Seoul Talks on Arts & Future”(서울에서 세계가 함께 이야기하는 예술과 미래)처럼, 매년 이맘 때쯤 세계인들이 서울에 모여서 미래와 예술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려고 합니다. 글로벌 문화판에서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서울에 모여서 서로의 다음 행보에 영감을 주고받으면, 그것이 바로 내일의 새로운 문화 흐름이 될 것입니다. 그 흐름을 바꾸는 자극이 될 수 있도록, 서울다움을 화두로 한 글로벌 문화담론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려고 합니다. 내년에도 늦가을에는 이듬해 봄바람을 온세계 사람들이 서울에 모여 함께 얘기하는 판이 열릴 것입니다. SAFT. (sea@sfac.or.kr)



“한국의 맛으로 마음에 점 찍기(點心)”, “한강에서 서울 바람 쐬며 치맥과 환담 : 한강消風(소풍)”, “서울야간 풍경散策(산책)” 등 <서울다움을 화두로 한 글로벌 대화 플랫폼>을 지향하며 기획된 부대 프로그램들

※ 이슈페이퍼 내용은 작성자의 견해일 뿐, 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Vol. 2025-11월

『서울에서 미리 내다보고 함께 얘기한 예술과 도시의 미래』  
(서울국제예술포럼 SAFT 2025 정책리뷰)

발행일: 2025년 11월 13일

발행인: 송형종

발행처: 서울문화재단([www.sfac.or.kr](http://www.sfac.or.kr))

기획·집필 : 서울문화재단 정책협력실 김해보 전문위원

편집 : 서울문화재단 미래전략팀

디자인 :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서울문화재단 블로그  
[문화+정책] 바로가기



문화예술 뉴스 스크랩  
텔레그램 채널 바로가기

